

# 경성(京城) 상업공간의 식민지 근대성: 상업회사를 중심으로

박선희\*

## A Study on Colonial Modernity of Commercial Space in the Case of Commercial Companies in *Kyungsung(Seoul)*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Seon-Heui Park

**요약** : 본 논문은 한국 경제가 식민지 경제 체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식민지 도시 경성의 상업공간이 도시 내부에서 어떻게 식민지 근대성을 표출시키고 있었는가를 상업회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경성의 상업회사에 대한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시계열적 분석을 보면, 상업회사의 수와 규모 면에서 본정2정목의 성장이 활발하였다. 민족별로 보면 일본인 상업회사 수는 본정1정목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규모 면에서는 황금정2정목의 상업회사가 크게 성장하였다. 조선인 상업회사의 변화를 보면, 종로2정목이 회사 수나 규모 면에서도 가장 많이 성장하였다. 일제강점기 경성에서 일본인의 상업활동이 활발하고 규모가 컸지만 조선 상인들은 이에 대해 대처하려고 노력하였다. 조선 상인들의 근대적 경영 방식의 회사 설립과 운영 등을 시도하였고 종로2정목의 화신연쇄점을 비롯한 여러 상업회사가 비교적 규모가 큰 상업회사를 유지하면서 근대성을 담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업회사의 규모에서 조선인 회사는 일본인 회사에 비해 영세하였고 상업회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식민지 도시 경성 상업공간의 식민지 근대성은 상업활동과 상업공간의 민족별 격리와 조선인 상업자본의 영세성이라는 이중구조를 보였다.

**주요어** : 상업공간, 식민지 근대성, 식민지 도시, 상업회사, 민족별 격리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colonial modernity of commercial space in the case of commercial companies in *Kyungsung(Seoul)*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Commercial companies in *Bonjung2jungmok* had the greatest growth in the numbers and the scale of company's capital from 1920s to 1930s. Japanese's commercial companies had concentrated in *Bonjung1jungmok* and the scale of Japanese's capital had been the greatest in *Hwanggumjung2jungmok*. Korean merchants had tried to change their commercial organization to modern and capitalistic system in the face of infiltration of Japanese merchant capital in *Kyungsung*. They had established some modern stock companies and had managed a few companies of large capital such as *Hwasbinyeonsbejum*(a multiple shop) in *Jongro2jungmok*. We may observe the modernity of commercial companies in some modern stock commercial companies and the activities of commercial merchants in *Kyungsung*. But Korean's commercial companies had been small-scale businesses in comparison with Japanese's commercial companies. Colonialism in commercial space in *Kyungsung* had been appeared doubly in ethnical segregation of commercial activities and the scale of commercial capital.

**Key Words** : commercial space, colonial modernity, colonial city, commercial company, ethnical segregation

\* 서울신현고등학교 교사(Teacher, Shinhyeon High School in Seoul), audreyphsh@hanmail.net

## 1. 서론

일제강점기에 한국이 경험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경제적 변화로서 이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일제강점기 경제적 변화에 관한 연구의 대표적인 접근은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식민지 수탈론은 조선사회의 내재적 근대화 가능성이 일제의 침략과 약탈에 의해 압살되었고 진정한 근대화는 해방 이후 민족국가가 수립될 때까지 지연되었다고 본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조선사회의 정체성 극복과 해방 이후 경제발전의 기반이 일제강점기에 근대적 경제체제가 구축되면서 조성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러나 근대화를 부정하는 수탈론이나 근대화만을 강조하는 접근으로는 일제강점기 당시 외부로부터 이식되어 온 근대성의 압력과 이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내적인 힘 사이에 존재한 갈등과 타협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일제강점기 외부에서 이식된 근대성은 전통을 파괴·변형시킴과 동시에 때로는 선택적으로 통합하기도 하였고, 내부의 힘은 이식된 근대성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기도 하고 근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전통을 변형시키기도 하였다. 식민지 시기의 경제적 변화는 식민지 내부와 외부의 변증법적 대립관계로서 바라보아야 한다(김동노, 2004, 14). 이러한 배경에서 수탈론과 근대화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식민지 근대성 논의가 등장한다.<sup>1)</sup> 한국 사회의 근대성은 일제의 식민지배가 가진 식민지성과 외부에서 이식된 근대성의 모습이 동시에 겹쳐서 나타났고 이 현상을 식민지 근대성(colonial modernity)이라는 개념으로 논의한다.

식민지 근대성 연구는 식민지 사회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식민지 근대성 논의는 식민지 연구의 주관심사였던 민족 외에 지역, 계급, 성, 예술, 통치체제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돌린다(도면회, 2001, 256). 식민지 근대성 연구는 주로 식민지 도시의 문화적 측면이나 일상생활의 경험 등에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정치적 체제, 경제적 변화 등에 초점을 두는 시도가 나타난다.<sup>2)</sup> 식민지 근대성은 일제강점기 경제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와 관련된 식민지 도시의 경제활동 공간과 도시 내부구

조, 도시경관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 따라서 식민지 근대성 연구는 식민지 도시의 경제적 변화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경제활동 공간에 관한 접근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도시의 경제적 변화에 관심을 두고 그 중 상업부문을 연구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경제적 변화는 생산부문보다 유통부문에서 먼저 이루어져 상업부문에 대한 연구는 경제체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주제 중 하나라고 본다.

본 논문은 한국 경제가 식민지 경제 체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식민지 도시 경성의 상업공간이 도시 내부에서 식민지 근대성을 어떻게 표출시키고 있었는가를 상업회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상업회사의 등장은 전통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상업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업회사에 대한 분석은 조선 상인들이 근대 상인이나 근대 기업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고, 근대성과 식민지성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다. 연구내용은 일제강점기 전국적 차원에서 상업회사의 특성, 경성에 입지한 상업회사의 공간적 특성과 시계열적 변화, 경성에서 상업회사의 식민지 근대성 등이다.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 당시 문헌을 분석하였는데, 분석된 자료는 1922년과 1938년 「朝鮮會社表」로서 이 자료 중 상업회사는 상업부문으로 분류된 회사이다.<sup>3)</sup> 전국적 규모에서 분석된 상업회사는 불입자본금 200,000 엔 이상인 회사이다.<sup>4)</sup> 경성의 상업회사로 분류된 자료는 「朝鮮會社表」중에서 조선에 본점을 두고 경성에 소재한 상업회사의 자료이다. 상업회사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은 회사 수와 공칭자본금의 규모를 지표로 하여 이루어졌다. 기본도는 경성이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 된 후 1936년 경기도의 일부 지역을 경성부로 편입하기 전까지의 행정구역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sup>5)</sup>

## 2. 일제강점기 상업회사의 성장과 변화

### 1) 식민지 근대성과 식민지 도시의 상업 연구

식민지 근대성(colonial modernity) 논의는 미국에

서 일제강점기 한국을 다룬 「Colonial Modernity in Korea」(1999)가 나오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미국의 주류 한국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이 책은 일제강점기 연구에 식민지 근대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끌어 들였다는 점에서 한국 연구에 자극을 주었다(고석규, 2002, 107). 이 책은 식민주의가 한국의 근대성 형성 과정에 개입했지만, 그 사실이 자동적으로 한국인들을 근대성의 단순한 소극적 수용자로 만들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김진균·정근식(1998)은 한국 식민지 체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식민지성과 근대성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고석규(2002)는 우리가 겪은 식민지 근대성은 식민지라는 입장에서 경험한 파행적 근대성이라고 보았다. 강내희(2002)는 한국에서의 근대성은 외부로부터의 이입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자와 식민피지배자와의 만남과 접촉의 역동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태혜숙 등(2004)은 식민지에서 근대성이란 강제로 이입되는 것만이 아니라 식민지 사람들이 형성해가는 복합적인 것으로 상호 긴밀하게 얽혀 있다고 보았다. 김동노(2004)는 식민지 근대성 검토에서 도시화의 의미를 강조하였는데, 근대성이 도시를 통해 형성되고 완성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식민지 도시는 제국주의의 중심부와 주변부 경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독특한 기능과 특성, 조직과 제도를 지닌 곳이었다(이무용, 1999, 28).<sup>6)</sup> 식민지 근대성은 식민지 도시의 독특한 기능, 조직, 제도 등에서 표출되었다. 태혜숙 등(2004)과 이혜은(1992)은 경성의 식민지성이 민족의 축에 따라 북촌/남촌으로 구획되는 이중적 공간구조로 드러남을 연구하였다. 김복수 등(2004)은 일제강점기 경성에서 북촌과 남촌의 민족별 거주지 격리는 식민지성과 근대성을 이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공간구성이라고 보았다. 김영근(2000)은 도시에 관찰되고 있는 식민지성과 근대성을 경성의 도시경험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변화영(2004)과 신명직(2003) 등은 식민지 도시의 식민지 근대성을 소설이나 만문문화 등의 문화적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도시연구에서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식민지 근대성을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았다.

식민지 경제에 초점을 둔 연구는 Park Siyoung (1981), 전경숙(1983), 木村光彦(1990), 이현창(1990), 이재하·홍순완(1992), 임덕순(1994), 허영란(1994a), 홍금수(2002), 노형석(2005)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나 식민지성과 근대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식민지 경제의 식민지성이나 근대성에 관한 접근은 1910년대 상업회의소와 상업기구의 식민지적 재편과정을 분석한 연구(조재곤, 2003), 한말과 일제하 서울의 종로 상인이 근대적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식민지 상업 자본으로 왜곡되어 가는 과정을 연구한 논문(홍성찬, 2002), 식민도시 경성에서 종로가 자주적 근대화의 상징으로 작용하였다고 본 연구(전우용, 2001) 등이 있다. 또한 허영란(1994b)은 일제강점기 상업활동의 식민지성과 근대성에 관해 구체적 논의를 하였다. 허영란은 상업활동의 식민지적 재편성을 도소매 상설점포의 성장, 재래시장의 상설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분리 등으로 파악하면서 일제시기 상업의 자본주의화는 식민지성과 근대성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상업공간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속에서 상업활동을 전개하였던 상인들에 초점을 둔 논문은 유승렬(1996), 홍성찬(2002), 조재곤(2003) 등이 있었다. 기타 일제강점기 근대적 회사의 등장과 의미를 연구한 손정목(1984)의 논문이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경제활동 중 시장과 상업의 변화, 상인들의 활동 등에 관한 논문은 많았으나 주로 전국적 차원에서 접근하였고 구체적인 식민지 도시에서의 상업활동을 분석한 경우에도 상업활동이 표출되는 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식민지 도시의 상업공간에서 상업회사·상설점포·매일장<sup>7)</sup> 등 상설시장의 특성과 성장이 갖는 경제적, 지리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도시에서 상업회사가 식민지성과 근대성을 어떻게 담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근대적 상업자본으로의 전화를 추구하였던 상업회사를 분석하면서 상업공간의 측면에서 식민지 도시의 근대성과 식민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2) 일제강점기 상업회사의 성장과 지역별 편중

조선총독부는 1910년 12월 29일자 制令 제13호로 [회사령]을 제정 발표하였다. 회사령의 주된 내용은 회사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조선인의 회사 설립을 억제하는 데에 있었다(황명수, 1992, 169). 회사령 시행 이후 일본인이 출원한 회사 설립은 거의 다 허가해 준 반면 조선인 기업의 설립 경영에는 엄격한 규제를 가하였다(손정목, 1984, 95). 1920년 4월 1일자 制令 제7호로 회사령이 폐지되었고 회사 설립과 지점 설치가 자유롭게 되었다. 1911년에 152개소였던 회사는 1920년에는 554개소로 증가하였고 1930년에는 1,198개소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1940년 3,161개소였다.

회사 수를 산업별로 살펴 보면, 1911년 전체 회사 152개소 중 상업회사 수가 66개소, 1920년 전체 회사

544개소 중 상업회사 수가 157개소, 1930년 전체 회사 수 1,918개소 중 상업회사가 660개소로 회사 중에서 상업회사 수가 가장 많았다. 1940년대에는 공업육성과 관련되어 전체 회사 3,161개소 중에서 공업회사가 1,126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업회사 수가 877개소로 많았다(朝鮮總督府, 1911; 1930; 1940).

회사 수를 민족별로 분석하면, 1909년 일본인이 설립한 회사 수가 109개소였고 조선인이 설립한 회사 수는 27개소였다. 1929년 일본인이 설립한 회사 수는 1,237개소였고 조선인이 설립한 회사 수는 362개소로서 일본인 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朝鮮總督府, 1909; 朝鮮總督府, 1929). 자본금의 규모에서도 일본인 회사가 우세하였는데, 1909년 일본인 회사는 11,000,000엔이었고 조선인 회사는 7,000,000엔이었다. 1929년 일본인 회사의 공칭자본금은 360,000,000엔이었고 조선인 회사의 규모는 42,000,000엔에 불과하였다. 일본인 대상인과 일본인 무역회사는 많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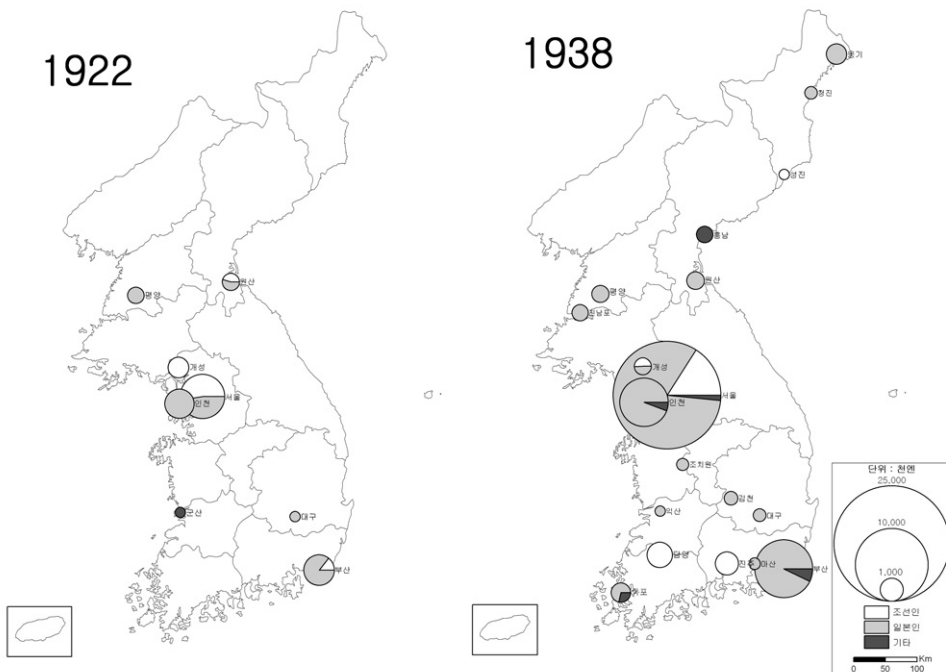


그림 1. 상업회사 자본금 규모의 변화

자료 : 京城商工會議所(1922; 1938)

주 : 불입자본금 200,000엔 이상인 회사를 분석하였고 기타는 합자회사, 합동회사, 외국인회사이다.

운을 남기고 있었고 자본력에서 열세였던 대다수의 조선 상인들은 정기시장을 오가는 소매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허영란, 1994b, 213).

일제강점기 상업회사 수의 성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1922년 불입자본금 200,000엔 이상인 상업회사가 있었던 곳은 전국적으로 22개소였고 1938년에는 67개소로 증가하였다. 1922년 상업회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성이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부산·인천·개성·원산에서는 각각 2개소가 있었다(京城商工會議所, 1922). 상업회사는 주로 경성과 일본인의 이주 및 경제 활동이 활발한 곳에 발달하였다. 1938년 상업회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성에 39개소, 부산에 6개소, 목포·원산·평양에 각각 2개소가 있었다(京城商工會議所, 1938). 1938년 상업회사는 1922년에 비하여 경성과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더욱 심하였고 이는 상업자본이 경성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상업자본의 경성으로의 집중은 상업회사 규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업회사의 규모를 지역별로 분석하면, 1922년에 경성이 불입자본금 총 3,687,500엔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다음으로 부산이 1,750,000엔, 인천이 1,600,000엔 순이었다(그림 1). 상업회사의 규모를 민족별로 분석하면, 자본금 200,000엔 이상인 상업회사의 전체 규모 9,287,500엔 중 일본인 회사가 5,850,000엔(62.99%)이었다. 경성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상업회사의 수와 자본금 규모가 비슷하였고 인천·평양·대구 등은 일본인 상업회사의 규모가 컸고, 개성은 조선인 상업회사의 규모가 컸다. 1938년에는 경성의 상업회사가 불입자본금 총 21,629,550엔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부산 6,250,000엔, 인천 4,375,000엔 순으로 규모가 컸다(그림 1). 민족별로 분석하여 보면, 전국 자본금 규모 40,446,700엔 중 일본인 상업회사의 자본금이 32,571,700엔(80.78%)으로 일본인 상업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1922년과 비교하여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일본인 상업회사는 경성, 부산, 인천 등에서 그 규모가 컸다. 반면, 담양, 진주 등에서는 조선인 상업회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일본 대상인은 경성과 부산, 인천, 진남포, 목포, 원산, 청진, 웅기, 조치원, 김천, 대구, 익산 등 항구나 철도 교통의 중심지를 거점으로 삼아 상업회사를 설립하고

전국의 상품유통을 지배하였다. 일본 상인들은 대부분 정기시장을 거치지 않고 상업회사와 상설점포, 매일장 등을 통해 전국적 상품유통을 장악해 나갔다.

### 3. 경성 상업회사의 성장과 변화

일제강점기 경성의 산업은 초기부터 상업활동이 두드러졌다. 1913년 경성의 산업별 회사 자료를 보면, 전체 회사 62개소(자본금 61,200,000엔) 중 상업회사가 21개소(자본금 24,400,000엔)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업이 9개소(자본금 10,700,000엔), 농림업이 9개소(자본금 12,900,000엔) 순이었다(표 1). 1910년대에 상업이 발달한 것은 1905년에서 1909년에 실시된 일제의 화폐·금융정리 이후 조선 상인의 기반이 흔들리고 일본의 상업자본이 조선에 상륙하여 내륙으로 진출한 것과 관련이 깊었다. 경성의 상업회사 증가는 1920년대 회사령의 폐지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박형용, 1996, 27). 1920년 당시 경성 전체 회사 121개소 중 상업회사가 57개소로 가장 많았다. 자본금 규모에서도 회사 자본금 총액 628,900,000엔 중 상업회사 자본금이 137,600,000엔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공업회사가 18개소, 금융업이 10개소, 농림업회사가 9개소 순이었고, 자본금 규모에서는 금융업회사가 96,300,000엔, 농림업회사가 55,200,000엔, 공업회사가 11,000,000엔 순이었다. 1930년에는 경성의 회사 690개소 중 상업회사가 261개소로 가장 많았고 공업회사가 185개소, 금융업회사가 45개소, 운수업회사가 3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1930년 자본금 규모를 살펴보면, 경성 전체 회사 자본금 980,200,000엔 중 금융업회사가 379,100,000엔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업회사의 자본금이 185,400,000엔, 공업회사의 자본금이 156,100,000엔 순으로 많았다. 1930년대에는 상업회사보다 금융업의 성장이 더욱 두드러졌다. 1940년에는 경성의 회사 1,227개소 중 상업회사가 439개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업회사가 385개소, 광업이 11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에서는 총 자본금 규모 3,930,600,000엔 중 공업회사의 자본금이 1,125,300,000엔으로 가장 많았고, 상업회사 자본금이

표 1. 경성의 산업별 회사 수와 자본금 규모

(단위 : 개소, 천엔)

	1913		1920		1930		1940	
	수	자본금	수	자본금	수	자본금	수	자본금
농림업	9	12,900	9	55,200	24	73,100	49	126,800
상업	21	24,400	57	137,600	261	185,400	439	900,500
공업	9	10,700	18	11,000	185	156,100	385	1,125,300
광업	3	1,300	4	2,200	12	17,000	113	370,100
수산업	4	300	4	6,300	2	6,100	3	112,000
운수업	3	4,300	5	18,100	35	78,300	30	246,000
금융업	4	5,300	10	96,300	45	379,100	41	459,200
기타	9	2,000	14	302,200	126	85,100	217	590,700
계	62	61,200	121	628,900	690	980,200	1,277	3,930,600

자료 : 京城商工會議所(1928); 京城府(1936); 京城府(1941); 박형용(1996)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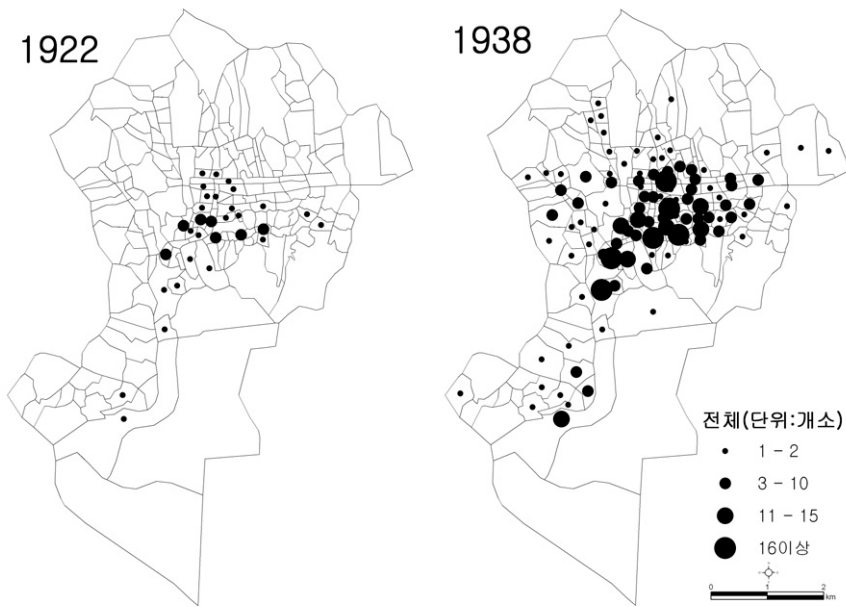


그림 2. 상업회사 수

자료 : 京城商工會議所(1922; 1938)

주 : 지도는 1914년에서 1936년까지의 행정구역에 기초하였다.

900,500엔, 금융업 자본금이 459,700,000엔 순으로 나타났다. 1940년대에는 상업회사 자본금보다 공업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상업회사는 숫적인

측면에서 191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 항상 우위를 점하면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경성 상업회사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하면, 192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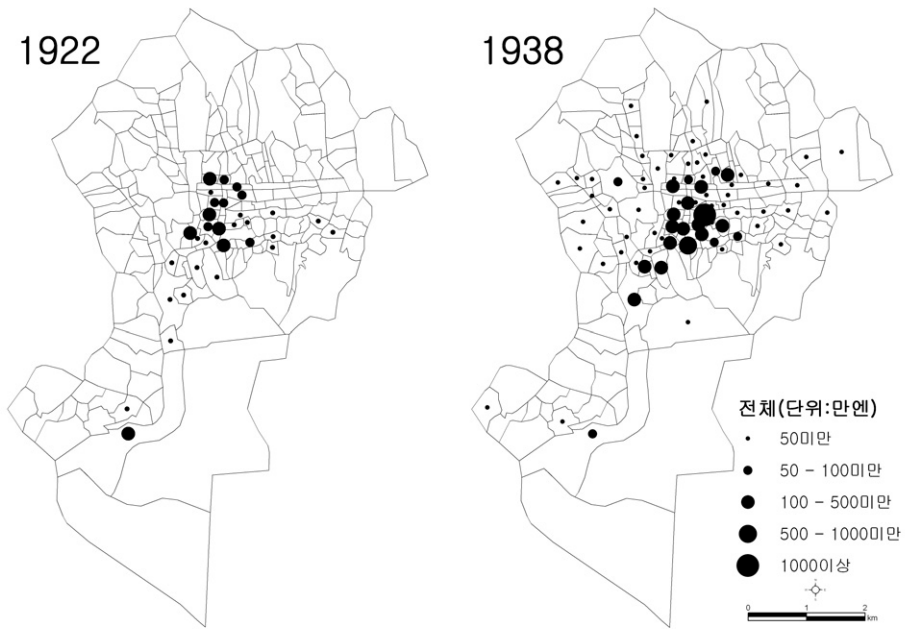


그림 3. 상업회사의 규모

자료 : 京城商工會議所(1922; 1938)

주 : 회사의 규모는 공칭자본금에 근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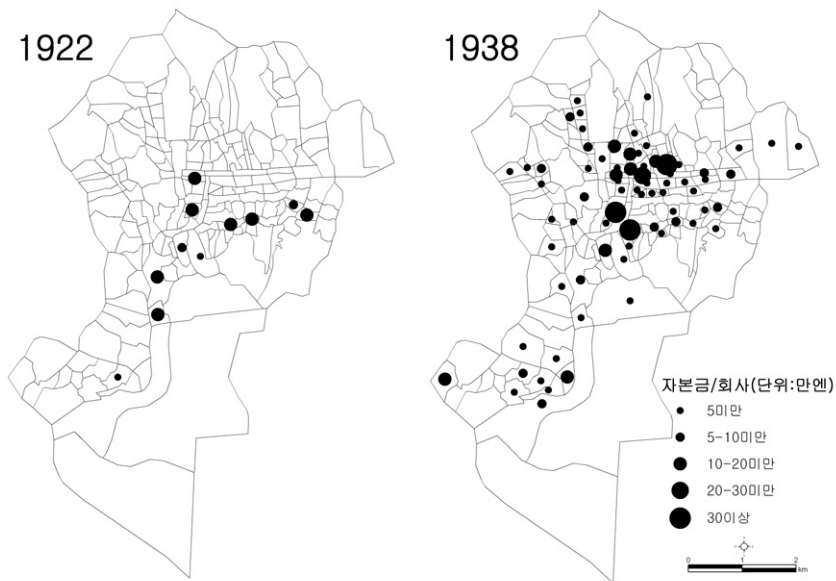


그림 4. 상업회사의 1회사당 평균 자본금

자료 : 京城商工會議所(1922; 1938)

주 : 회사의 규모는 공칭자본금에 근거하였다.

경성의 상업회사 수는 남대문동2정목(현 남대문로2가)이 7개소, 태평동2정목(현 태평로2가)이 6개소, 본정2정목(현 충무로2가)과 장곡천정(현 소공동)이 4개소 순이었다(그림 2). 1930년대 경성의 상업회사 수는 본정2정목이 19개소로 가장 많이 많았고, 본정1정목(현 충무로1가), 종로2정목(현 종로2가), 고시정(현 동자동)이 각각 17개소로 많았다(그림 2). 황금정2정목(현 을지로2가)과 남대문동5정목(현 남대문로5가)이 16개소, 한강동(현 한강로)과 황금정3정목(현 을지로3가)이 15개소였다.

경성 상업회사의 자본금 규모를 지역별로 분석하면, 1920년대에는 황금정1정목의 상업회사 자본금 규모가 3,000,000엔으로 가장 컸고, 본정1정목이 2,065,000엔이 다음 순이었다(그림 3). 남대문동2정목·태평동2정목·청진정(현 청진동)·한강동이 1,000,000엔을 넘는 규모였다. 1930년대에는 황금정2정목의 상업회사 자본금 규모가 11,864,800엔으로 가장 컸고, 본정1정목이 5,278,500엔, 남대문동2정목이 4,090,000엔, 장곡천정이 4,051,750엔, 종로2정목이 3,981,000엔 순이었다(그림 3).

경성 상업회사의 1회사당 평균 자본금 규모를 보면, 1920년대에는 290,568엔이었고 1930년대에는 118,175엔으로 자본금 규모가 감소하였다. 이는 소규모 상업회사의 수적 증가와 일제 말 공업중심 위주의 발달에 기인한다고 본다. 경성 상업회사의 1회사당 평균 자본금 규모를 지역별로 분석하면, 1920년대 1회사당 평균자본금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황금정 1정목으로 3,000,000엔이었다(그림 4). 다음으로 청진정과 한강동이 각각 1,000,000엔 순이었다. 황금정1정목은 상업회사 자본금 규모의 총액에서나 1회사당 평균자본금 규모에서 모두 커서 상업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1930년대 1회사당 평균 자본금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황금정 2정목으로 741,550엔이었다. 다음으로 남대문동2정목이 409,000엔, 신설정(현 신설동)이 400,000엔 순이었다. 황금정2정목은 자본금 규모의 총액이나 1회사당 평균 자본금 규모에서 모두 컸다.

1920년대와 1930년대 경성 상업회사의 지역별 분포와 특성을 비교한 결과, 상업회사 수의 증가는 본정2정

목에서 가장 현저하였고 자본금 규모에서는 황금정2정목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다. 반면 종로2정목은 상업회사 수에서 많은 증가를 보였으나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상업회사가 밀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4. 경성 상업회사의 식민지 근대성

### 1) 상업회사의 민족별 특성

일제강점기 상업활동에서 회사의 설립과 성장은 근대적 의미의 상업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상업회사의 근대성은 상업회사의 수와 규모의 성장, 도심으로의 집중 등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식민지성은 민족별 상업회사의 공간적 특성과 규모의 차이 등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업회사 성장과 상업활동이 활발하였던 1920년대와 1930년대를 중심으로 상업회사의 식민지 근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성 상업공간이 지닌 식민지성은 상업회사의 민족별 격리에서 파악할 수 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상업회사의 민족별 분포를 보면, 1920년대에는 일본인 상업회사가 많이 분포한 곳은 남대문동2정목이 6개소, 태평동2정목이 5개소, 장곡천정이 4개소, 본정1정목·본정2정목·본정3정목이 각각 3개소 순이었다(그림 5). 1930년대에 일본인 상업회사가 많이 분포한 곳은 본정1정목으로 16개소였고, 본정2정목이 15개소, 고시정이 14개소, 한강동·명치정2정목·황금정3정목이 각각 13개소 순이었다.

1920년대 조선인 상업회사가 많이 분포한 곳은 종로2정목, 남대문동1정목, 다옥정(현 다동)에 각각 2개소였다(그림 6). 1930년대 조선인 상업회사 수는 종로2정목이 17개소로 가장 많았다. 남미창정이 9개소, 종로1정목과 낙원정(현 낙원동)이 각각 8개소, 남대문동4정목과 태평동2정목이 각각 6개소 순이었다. 기타 외국인 상업회사는 1920년대에는 없었고 1930년대에는 남대문동1정목이 3개소, 명치정2정목과 본정1정목, 영락정2정목(현 저동2가)이 각각 2개소 순이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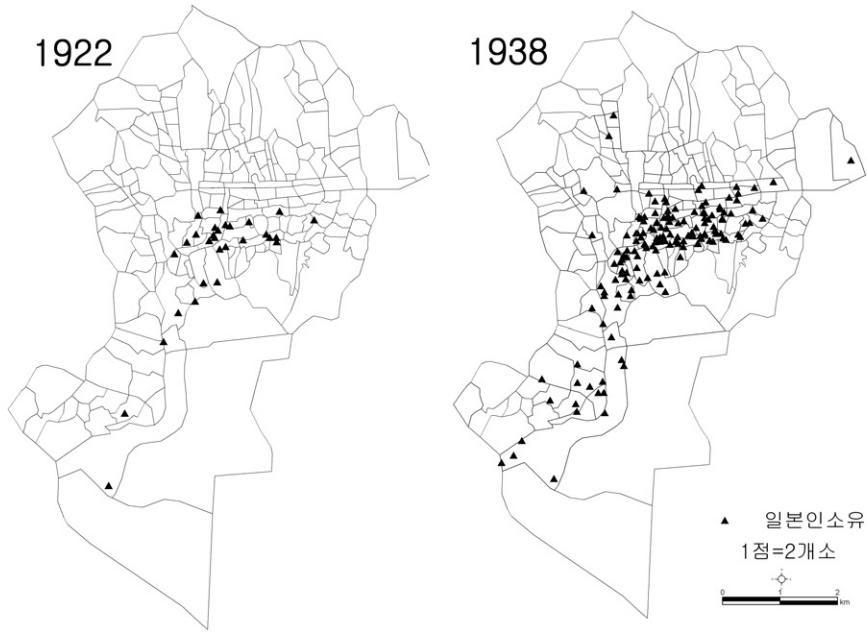


그림 5. 상업회사의 민족별 분포(일본인)

자료 : 京城商工會議所(1922;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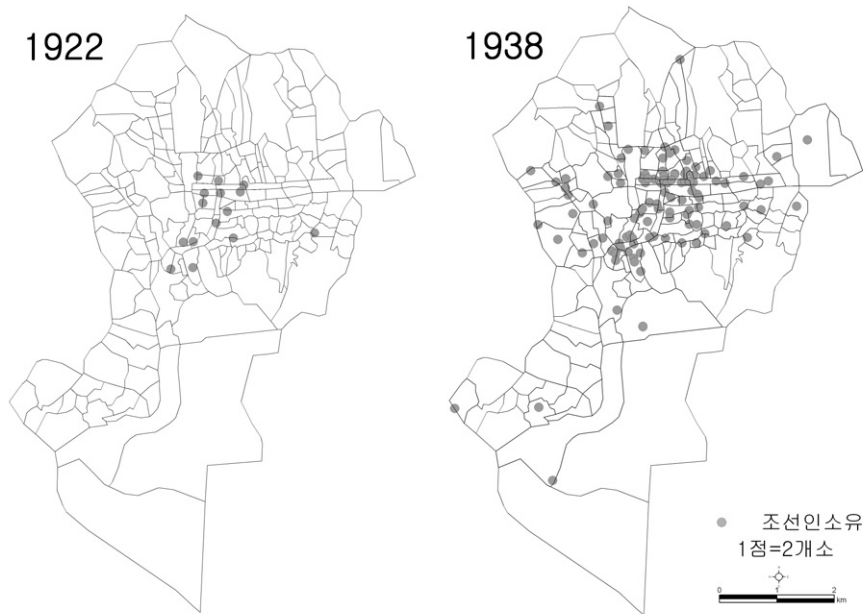


그림 6. 상업회사의 민족별 분포(조선인)

자료 : 京城商工會議所(1922; 1938)

주 : 지도는 1914년에서 1936년까지의 행정구역에 기초하였다.



그림 7. 상업회사의 민족별 분포(외국인)

자료 : 京城商工會議所, 「朝鮮會社表」, 1938.

상업회사의 민족별 자본금 규모를 보면, 1920년대 일본인 상업회사는 황금정1정목이 3,000,000엔, 본정1정목이 2,605,000엔, 태평통2정목이 165,700엔이었고 다음으로 한강통, 남대문통2정목, 장곡천정, 본정2정목, 본정3정목 순이었다(그림 8). 1930년대 일본인 상업회사가 집중된 곳은 황금정2정목이 10,954,800엔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본정1정목이 5,178,500엔, 남대문통2정목이 3,765,000엔, 장곡천정이 3,051,750엔, 남미창정이 1,966,000엔, 남대문통5정목이 1,851,500엔, 명치정1정목이 1,205,000엔 순이었다.

1920년대 조선인 상업회사의 공칭자본금 규모가 큰 곳은 남대문통2정목과 청진정이 각각 1,000,000엔이었고, 남대문통1정목은 900,000엔이었다(그림 9). 1930년대 조선인 상업회사는 종로2정목이 3,981,000엔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종로1정목이 1,055,000엔, 돈의정이 1,025,000엔, 장곡천정이 1,000,000엔 순이었다. 외국인 상업회사의 자본금 규모는 명치정2정목이 400,000엔, 남대문통2정목이 150,000엔 순이었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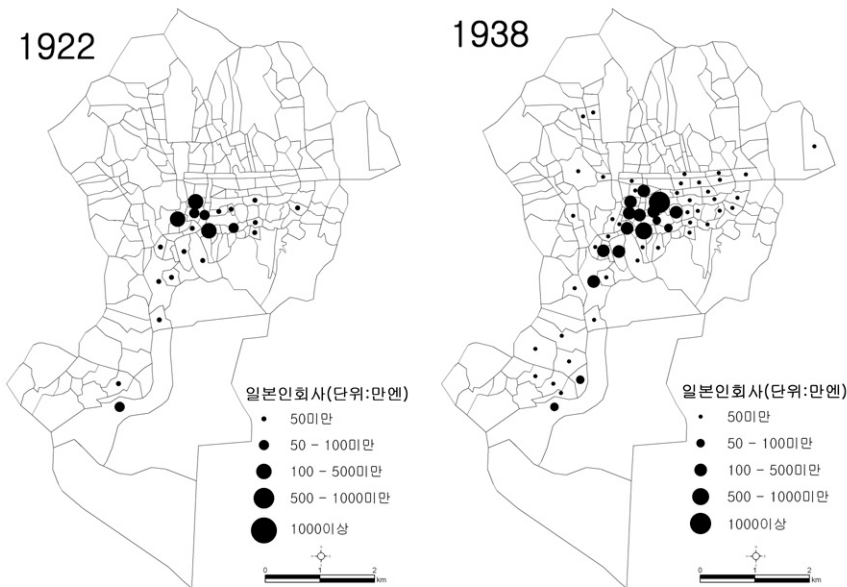


그림 8. 상업회사의 민족별 규모(일본인)

자료 : 京城商工會議所(1922; 1938)

주 : 회사의 규모는 공칭자본금에 근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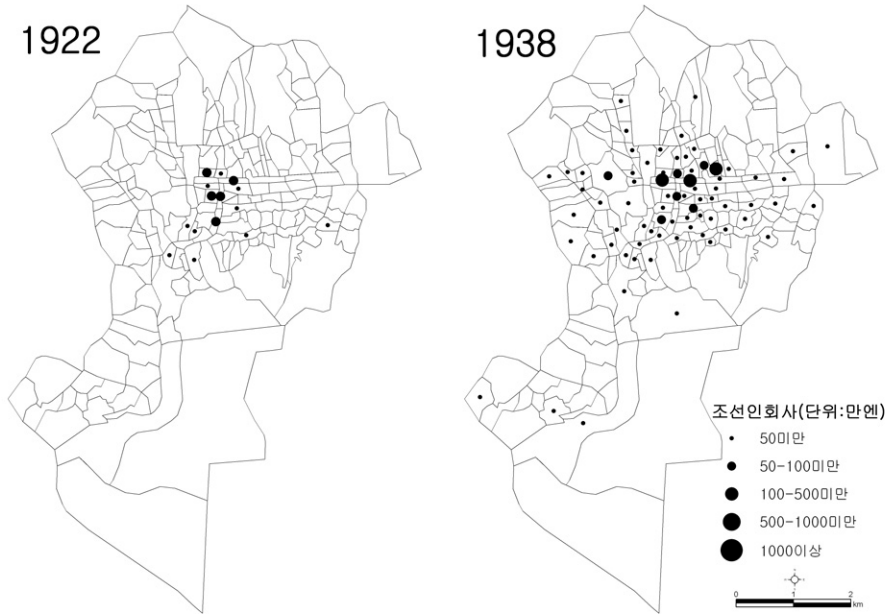


그림 9. 상업회사의 민족별 규모(조선인)

자료 : 京城商工會議所(1922; 1938)

주 : 회사의 규모는 공청자본금에 근거하였고 지도는 1936년 행정구역 개편 전에 기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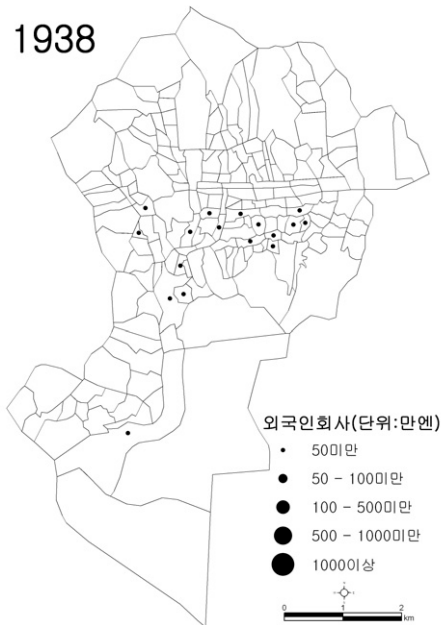


그림 10. 상업회사의 민족별 규모(외국인)

자료 : 京城商工會議所(1938)

주 : 회사의 규모는 공청자본금에 근거하였다.

민족별로 상업회사의 수와 규모를 분석한 결과, 일본인의 상업활동이 매우 활발하였고 조선인의 상업활동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나 일본인을 제외한 기타 외국인의 활동은 적었다. 상업회사의 지역별 특성을 보면, 일본인 상업회사는 본정1정목의 상업회사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규모에서는 황금정2정목이 크게 증가하였다. 황금정은 금융기관이 집중되어 있었던 곳이고 본정은 주로 일본인의 고급소매상과 대형점포가 집중되어 있었던 곳이다(노형석, 2005, 122-123). 종로2정목과 종로1정목은 수와 규모에서 조선인 상업회사가 많았고 조선상인들이 상업회사의 활동을 통해 근대성을 추구하고 있었다.

## 2) 상업회사의 식민지 근대성

일본인의 상업활동은 일제의 화폐정리사업, 근대금융기관의 상업대출, 근대적 교통<sup>8)</sup> 등의 영향으로 활발해졌다. 일제는 화폐정리사업(1905-1909)으로 객주·

어음·엽전·외획 등의 전통적인 화폐와 금융에 대한 신뢰를 사라지게 하여 조선 상인의 기반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근대적 금융기관을 통해 일본인의 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박선희, 2003, 146). 일본상인은 근대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상업자금을 확보하고 조선의 각 지역에 진출하였다. 상업회사 및 성설점포가 증가하였고 일본상인의 경우 무역을 위시하여 각종 상품의 도매 및 소매를 담당하였다. 무역상은 상업회사를 설립하여 일본의 면화 도매업, 곡물과 해산물과 우피 등 조선물산을 수출하거나 일일잡화를 비롯한 미곡, 일본의 포복(五服), 연초, 간장(醬油), 술, 문방구, 과자, 부역용 잡화(荒物) 등의 상품을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여 조선 각지의 소매상에 공급하였다(京城商會會議所, 1923; 김태웅, 2000, 460).

조선 상인은 화폐정리사업과 일본 상인의 진출 확대

로 사업 기반에 치명적 손실을 입어 일제에 대한 저항심이 일어났지만, 미국무역의 확대와 포복류를 중심으로 수입상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조선 상인의 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이승렬, 2000, 53). 한편, 일본 제국주의는 회사령을 통해 조선인 자본가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억압했지만 제국주의적 초과 이윤을 창출하는 米綿교환체제의 확대를 위해 토착적 상권을 갖고 있는 조선 상인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경성에서 일본인의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조선 상인들은 이에 대해 대처하려고 노력하였다. 상인자본가의 활동이 응축된 기구였던 상업회의소의 경우, 경성에서 1887년 일본인의 泥岬상업회의소가 설립되었고 1886년 조선인의 한성상업회의소가 설립되었다(조재근, 2003, 260-261).<sup>9)</sup> 경성의 조선 상인들은 독자적

표 2. 조선인 주요 상업회사(1938)

회사명 (주식회사)	주소	대표자	설립연도	공칭자본금 (엔)	설립목적
和信連鎖店	종로2정목	박홍식	1936	2,000,000	화신連鎖店
朝鮮官鹽販賣	장곡천정	박호양	1921	1,000,000	官의 염 판매, 금융, 대부
和信	종로2정목	박홍식	1931	1,000,000	화신백화점
崔潤錫商店	교의정	장기천	1929	1,000,000	직물판매, 금융, 서양 百貨
柳韓洋行	서대문정2정목	유일한	1936	750,000	의학물리화학약품, 위생재료
大昌貿易	공평정	백락원	1930	500,000	수출입품위탁판매, 제조가공
大昌社	종로2정목	백락원	1932	500,000	수출입판매
第一證券	황금정2정목	김상훈	1934	500,000	유가증권 매매
朝鮮金商	남대문통1정목	한학수	1938	400,000	金銀취급
共同貿易	남대문통1정목	김규원	1919	300,000	면사, 모피, 해산물, 종이무역
三環商會	종로2정목	이영진	1937	300,000	자동차 및 부품판매
大成貿易	종로5정목	권병갑	1922	250,000	곡물, 해산물 위탁판매
朝一紙物	종로2정목	박홍식	1926	250,000	문구, 종이류, 인쇄업
公益社	남대문통2정목	박승직	1936	200,000	물품판매, 대리, 운송
金益證券	황금정2정목	강익하	1933	200,000	유가증권 매매
明治證券	명치정1정목	김귀현	1936	200,000	유가증권 매매
鮮光商事	종로4정목	지우선	1920	200,000	부동산매매, 자금융자, 정미업

자료 : 京城商會會議所(1938)

주 : 공칭자본금 200,000엔 이상의 상업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인 상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근대적 경영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1915년 당시 경성의 상업회의소는 조선 상인들로 운영되는 상업회의소(재정규모 6,552원)와 일본 상인들로 운영되는 상업회의소(재정규모 9,684원)로 구분되어 있었다. 상업회의소령 시행 규칙 발표(1915년)에 따라 민족별로 분리되었던 상업회의소가 통합되었다.<sup>10)</sup>

조선 상인들은 회사령으로 인해 상업자본의 산업자본화라는 자본운동을 억압받고 있었지만 상업자본 틀내에서의 자본운동은 보장받고 있었고 나름대로 자본가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해나면서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다(이승렬, 2000, 54). 그리고 경성의 상인들은 조선의 경제가 일본 자본주의체제에 구조적으로 편입되는 가운데 일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파산 몰락하였고 일부는 새로운 체제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갔다(홍성찬, 2002, 217).

종로의 옛 시전 상인들은 근대적 경영 방식의 회사 설립을 추진하여 1916년 대창무역주식회사, 1917년 조선지주주식회사 등을 설립하면서 종로 상권을 유지해 나갔다. 대창무역주식회사는 자본금이 500,000원으로 설립목적은 내외 생산품의 매매 및 수이출입, 위탁매매, 직물류, 제조가공 및 그 판매였다. 1925년 당시 종로에는 포목전, 용기전, 자기전, 서점, 은방, 옥방, 견제약국, 패물전, 주막, 복덕방, 전당국 등 전통적인 상전이 여전히 다수를 점하고 있었지만, 새로 위탁판매업, 잡화점, 정미소 등이 출현하고 있었으며 점포의 구조나 경영 방법도 종래와 면모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많았다(朝鮮總督府, 1925, 97-98). 종로는 경성의 중심 상가이자 자주적 근대화의 상징이었다.

객주였던 박승직의 경우 전국을 돌아다니는 白木行商에서 종로4정목에 포목전을 설치하여 緞緞포목 무역 및 매매업을 하면서 和洋雜貨와 朴家分을 제조판매하는 정신상점(종로4정목), 곡물 위탁 및 판매업을 하는 공진상회(동대문시장)를 운영하였고 광장주식회사의 설립에도 관여하였다(이승렬, 2000, 102). 경성의 조선 상인들은 박승직처럼 개인상점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상인들간의 자본 합동을 통해 무역 및 상업회사나 창고업, 부동산임대, 대금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설립 운영하였다.

김태희는 19세기말 종로1정목에 가족 기업 형태의 포목 상점인 수남상회를 설립하고 1913년 개인기업으로 전환시키면서 자본금도 확정하였다. 근대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자본금 불변, 자본금 영속성의 원칙을 지켰다(홍성찬, 2002, 239). 그리고 매월 또는 1년 단위로 근대적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해마다 재무와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 결산을 하였다. 이는 당시 종로의 일부 조선상인들이 근대 기업 조직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정병욱(2003)은 식민지 당시 조선인 상업자본가의 존재 방식은 근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성장하였던 소수와 근대금융으로부터 소외되어 고금리 전근대 금융에 의존하였던 중소상인, 직접 고리대금업으로 존속을 도모했던 상인 등의 부류가 있었다고 본다. 원운수의 경우는 직접 고리대금업으로 존속을 도모했던 상인이었다. 원운수는 남대문시장에서 果物

표 3. 경성의 5대 상업회사(1938)

회사명(주식회사)	주소	대표자	설립연도	공칭자본금(엔)	설립목적
朝鮮取引所	황금정2정목	일본인	1932	6,599,800	유가증권 매매
三中井	본정1정목	일본인	1922	3,000,000	서양의복, 물품
丁子屋商店	남대문동2정목	일본인	1921	2,500,000	百貨 진열판매
和信連鎖店	종로2정목	조선인	1936	2,000,000	화신연쇄점
朝取代行	황금정2정목	일본인	1937	2,000,000	유가증권매매

자료 : 京城商工會議所(1938)

주 : 공칭자본금 규모가 가장 큰 5대 상업회사의 자료이다.

표 4. 1930년대 주요 상업회사의 지역별·민족별 분포

(단위 : 개소, 천엔)

주소	전체		조선인 회사		일본인 회사	
	수	자본금	수	자본금	수	자본금
황금정2정목	7	11,499	2	700	5	10,799
종로2정목	7	5,350	5	4,050	2	1,300
장곡천정	6	4,450	1	1,000	5	3,450
본정1정목	2	3,200	-	-	2	3,200
황금정1정목	2	2,000	-	-	2	2,000
남대문통3정목	2	1,500	-	-	2	1,500
본정2정목	2	1,500	-	-	2	1,500
남대문통5정목	3	1,440	-	-	3	1,440
명치정1정목	3	1,200	1	200	2	1,000
교의정	1	1,000	1	1,000	-	-
명치정2정목	2	1,000	-	-	2	1,000
영락정2정목	1	1,000	-	-	1	1,000
계	38	35,139	10	6,950	28	28,189

자료 : 京城商工會議所(1938)

주 : 공칭자본금이 1,000,000円 이상인 지역을 분석하였다.

위탁업에 종사하다가 1922년 生果物 위탁 및 증개 사업을 하는 경성진흥주식회사 설립에 참여하고 1932년에는 광업계에 뛰어들어 증석을 채광하고 판매하였다. 1935년에는 대창상회를 세워 해산물 포피를 거래하였다. 그 후 화약류를 매매하기도 하였고 요식업과 금융신탁에 대한 투자도 하였다. 그러나 전근대적 고리대금업을 영위하는 금융신탁회사는 식민지 시기 자본가의 퇴영적 모습이었다(정병욱, 2003, 238).

조선 상인들의 근대적 기업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는 상업회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별적인 상업회사의 규모를 분석하여 보면, 공칭자본금이 200,000엔 이상이었던 상업회사 중 조선인 상업회사는 17개소로서 종로2정목의 화신연쇄점의 자본금 규모가 가장 컸다(표 2). 종로2정목에 5개소, 황금정2정목과 남대문통1정목에 각각 2개소가 입지하고 있었다. 1938년 당시 상업자본의 규모가 컸던 조선 상인으로는 박홍식, 박호양, 장기천, 유일환, 백락원 등이었다. 상업회사의 역할을 설립 목적으로 파악해 보면, 백화점이나 직물·염·의약품·금은제품·종이 판매·수출입 위탁 판매·자동차

차 및 부품 판매·정미·금융과 증권거래<sup>11)</sup> 등이었다.

상업회사의 규모에서 가장 큰 회사 5개소를 분석하면, 일본인 회사가 4개소와 조선인 회사가 1개소였다(표 3). 조선인 회사는 종로2정목에 입지한 화신연쇄점으로 5개 상업회사 중 일본인 회사보다 규모가 작아 근대 기업을 추구하였던 조선인 상업자본의 규모가 일본 상인의 자본보다 영세하였음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경성의 상업회사에서 보여주는 식민지성은 민족별 공간적 격리와 함께 자본의 규모에서 민족별로 구분되는 이중구조를 보여준다.

상업회사의 공간적 분포에서도 근대성을 찾아볼 수 있다. 1938년 자료에 의하면, 경성에서 상업회사의 공칭자본금 총액이 1,000,000엔을 초과한 지역에서 황금정2정목의 규모가 11,499,000엔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종로2정목이 5,350,000엔이었고, 장곡천정이 4,450,000엔, 본정1정목이 3,200,000엔 순으로 자본금 규모가 컸다(표 4). 공칭자본금 총액이 1,000,000엔 이상인 지역은 경성의 상업회사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활동과 금융활

동이 집중되었고 경성이 자본주의 도시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도심이 형성되었다(박형용, 1996, 48). 1917년 경성의 지가를 보면, 남대문통1정목이 평당 112.69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남대문통2정목이 평당 103.64원, 종로2정목이 평당 89.36원 순으로 나타났다(강병식, 1990, 211-220). 종로1정목, 본정1정목, 본정2정목, 남대문통4정목, 남대문통3정목, 황금정2정목, 종로3정목도 평균지가가 높은 지역으로 지가 순위 10위 안에 있었다. 이 지역은 과거 봉건왕조체제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궁궐 중심의 도심과는 다른 새로운 도심을 형성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새로운 도시는 자본주의 도시의 중심업무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근대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식민지 도시 경성의 도시는 일본인 주도의 상업활동과 금융활동이 집중된 결과이며 식민지성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경성의 도심이 보여준 식민지성은 상업회사의 민족별 분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공칭자본금 총액이 1,000,000엔 이상인 지역에서 상업회사의 분포를 민족별로 분석하면, 상업회사 총 38개소(35,139,000엔) 중 일본인 회사가 28개소(28,189,000엔), 조선인 회사가 10개소(6,950,000엔)로, 일본인 상업회사는 수에서도 많았고 자본금 규모에서도 컸다. 공칭자본금 총액이 1,000,000엔 이상인 지역은 경성의 상업회사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지역에서 일본인의 상업활동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민족별 규모를 보면, 일본인 회사의 자본금이 많았던 지역은 황금정2정목으로 10,799,000엔이었고, 다음으로 장곡천정이 3,450,000엔, 본정1정목이 3,200,000엔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인 회사의 자본금이 많았던 지역은 종로2정목으로 자본금이 4,050,000엔이었다. 다음으로 장곡천정과 교의정이 각각 1,000,000엔으로 나타났다. 황금정2정목, 종로2정목, 장곡천정 등에서 상업회사가 민족별로 혼재되어 있었다. 상업회사의 민족별 혼재는 이 지역들에서 일본상인과 조선상인의 경쟁과 타협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며 조선상인들이 근대성을 나름대로 추구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황금정2정목과 장곡천정에는 일본인 회사가 더 많았고, 본정2정목에는 일본인 회사만이 존재하였다. 종로2정목에 조선인 회사 중 규모가 큰

회사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황금정2정목과 본정2정목 등은 일본인의 상업공간으로, 종로2정목에는 조선인의 상업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상업회사 1개소당 자본금 규모를 민족별로 분석하면, 1922년 조선인 회사는 340,388엔, 일본인 회사는 268,695엔으로 조선인 상업회사 규모가 일본인 상업회사보다 평균적으로 컸다(京城商工會議所, 1922). 이는 전통적으로 성장한 조선인 상업자본이 근대 상업자본으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1938년 조선인회사는 82,640엔, 일본인 회사는 148,180엔으로 1938년에는 1922년보다 일본인 상업회사의 규모가 조선인 상업회사보다 커져서 식민지성을 보인다(京城商工會議所, 1938).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경성에서 근대적 상업자본으로의 전화를 추구하였던 상업회사가 식민지성과 근대성을 동시에 담지하고 있었음을 살펴 보았다. 일제강점기 경성에서 상업부문의 자본주의화는 근대 회사 설립과 규모 확대를 가져왔고, 상업회사의 집중이 이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도시의 도심이 형성되어 갔다. 이러한 상업회사의 근대성에도 불구하고 상업회사의 분포가 민족별로 격리되어 나타났고 자본금 규모에서도 민족별 격차가 현저했으며 도심형성이 일본인 상업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가는 식민지성을 보였다. 상업에서의 식민지 근대성은 상업회사의 공간적 특성과 규모에서 뿐 아니라 전근대사회에서 상품유통의 주요한 조직이었던 정기시장이 상업회사와 도소매 상설점포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된 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분리, 상설점포의 증가와 백화점 등장, 은행과 각종 회사의 도심 집중, 차등화된 지가 형성, 근대 교통의 발달과 도시화 방향, 식민지 도시의 공업 성장과 한계 등에서도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경제가 식민지 경제 체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식민지 도시 경성의 상업공간이 도시 내

부에서 식민지 근대성을 어떻게 표출시키고 있었는가를 상업회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근대적 의미의 회사 설립은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활발해졌다. 1920년대 상업회사는 경성, 인천, 부산 등지에서 발달하였고 1930년대에는 상업자본이 경성에 더욱 집중되어 경성과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더욱 심하였다.

일제강점기 경성 상업회사의 공간적 특성을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시계열적 변화를 통해 살펴본 결과, 상업회사의 수에서 본정1정목·본정2정목·종로2정목 등이 많이 성장하였고 자본금 규모에서는 황금정2정목과 본정1정목의 규모가 많이 성장하였다. 본정2정목은 상업회사의 수와 규모면에서 성장이 활발한 곳이었으며 종로2정목은 숫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보였으나 규모면에서는 크게 성장하지 않아 중소규모의 상업회사가 밀집되어 있었다. 경성의 상업회사를 민족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본인 상업회사 수는 본정1정목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규모면에서는 황금정2정목의 규모가 컸다. 조선인 상업회사는 종로2정목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여 종로2정목은 조선인의 상업공간임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경성 상업회사의 식민지 근대성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성에서 일본인의 활발한 상업활동에 조선 상인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였다. 조선상인들로 운영되는 경성상업회소 결성, 종로의 옛 시전 상인들의 근대적 경영방식의 회사 설립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상업회사의 식민지 근대성은 자본금 규모의 민족별 격차에서도 나타났다. 1930년대 공칭자본금 200,000엔 이상의 상업회사의 경우, 황금정2정목과 종로2정목에 규모가 큰 상업회사가 숫적으로나 규모면에서 모두 집중되어 있었고, 일본인 상업회사가 수와 규모 면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칭자본금 200,000엔 이상의 상업회사 중 조선인 회사는 종로2정목에, 일본인 회사는 황금정2정목에 집중되어 있었다. 일제강점기 경성 상업회사의 식민지성은 민족별 공간적 격리와 함께 자본의 규모에서 민족별로 구분되는 이중구조를 보여주었다.

일제강점기 자본주의는 경성에서 상업회사의 수와 규모 확대라는 발전을 가져왔으나 경성에서 규모가 큰

5개 상업회사 중 조선인 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일본인 회사보다 적어 일본 상업자본에 비교하여 조선 상업자본의 영세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조선상인은 종로2정목의 화신연쇄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상업회사를 유지하면서 근대성을 담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상업회사의 집중이 이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도시의 도심이 형성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회사를 중심으로 식민지 도시 경성의 상업공간이 보여준 식민지 근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상업회사의 식민지 근대성을 상업회사의 민족별 격리와 자본금 규모의 차이라는 차원에서만 분석하였고,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자료에 한정되어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친 시계열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나타났다. 상업활동과 소비활동을 하였던 경성 사람들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식민지 근대성을 담지 못하였다. 상업공간의 식민지 근대성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의 여러 시기의 자료 분석과 상업회사의 경영방식과 자본관리, 조선 상업자본의 예측성과 민족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식민지 도시 경성에서 상업공간이 보여준 식민지 근대성은 남대문시장, 동대문 시장 등과 상설점포와 같은 소매업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이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또한 식민지 교통 운수 체계의 정비, 화폐와 금융제도의 근대적 개편, 토지 소유 제도의 근대화 등에 따라 식민지 도시의 상업공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註

- 1) 근대성은 근대화라는 역사적 과정의 구체적 결과로서 근대의 특성을 나타낸다. 근대성은 사상 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제도와 형식등에서도 사용된다. 식민지 근대성은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형성되고 구조화된 각종 정치적, 경제적 제도와 통치 행위, 건축, 예술, 생활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지리학에서 식민지 근대성은 식민지 하에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파악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 2) 문화적 관점에서 식민지 근대성 연구는 태혜숙 등(2004), 김복수 등(2004), 김영근(2000), 변화영(2004), 신명직(2003)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 3) 조선회사표에서 회사는 농업, 상업, 공업, 광업, 수산업, 금융업, 운수업, 전기업, 기타로 구분되어 있고 본 논문에서 분석한 상업회사는 본점을 조선에 둔 회사에 한정하였다.
- 4) 불입자본금은 회사의 실질적 자본으로 주주가 실제로 납입한 자본금이며 공칭자본금은 회사를 세울 때 정관에 규정하여 허용한 최고 한도의 자본으로 회사의 총 자본금이다.
- 5) 1936년 이후의 행정구역에 근거한 기본도에 경성의 상업회사의 분포와 변화를 분석해 보았으나 도시의 중심에 집중된 상업회사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부적절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지리적 패턴이 잘 나타나도록 1920년대 경성의 행정구역에 근거하여 지도화 작업을 하였다.
- 6) 식민지 도시의 독특한 기능과 특성, 조직과 제도 등에 관한 연구는 하시아 히로시(2005), 염복규(2004), 이규목(2001), 이기석(2001), 박형용(1996)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 7) 본 연구에서 매일장은 제2호 시장이었던 공설시장을 의미한다.
- 8) 일본인의 거주지인 신용산, 충무로 등지에 전차노선이 먼저 신설되었는데 왕십리선, 청량리선, 마포선 그리고 용산선 등의 전차 노선이 상업회사의 입지분포에도 영향을 주었다(이혜은, 2001, 170).
- 9) 한성상업회의소는 종로상업회의소라고도 불렀다.
- 10) 경성 상업회의소의 조선인 주요인사들은 조진태, 백완혁, 조병택, 백인기, 한상룡, 예종석, 김기영 등이었다. 조진태와 백완혁은 시전상인이었고 백인기는 孳布商으로 재물을 모은 은행자본가였고 김기영은 대한천일은행장을 역임했던 개성상인이었다.
- 11) 1920년 5월28일에는 경성주식현물취인시장이 설립되어 최초의 조직적인 형태의 증권거래소가 탄생되었고 그 후 일본은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1931년 7월 1일 朝鮮取引所를 제정하였다.

## 文獻

강내희, 2002,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과 충격의 변역," 문화과학, 31, 74-97.

강병식, 1990, 일제시대 서울의 토지연구, 민족문화사.

고석규, 1997, "일제강점기 서울 중심부에 나타난 도시문화의 특성," 한국사학연구, 567-593.

고석규, 2002, "다시 생각하는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과 민

족주의," 문화과학, 31, 98-117.

김동노, 2004, "식민지시기 일상생활의 근대성과 식민지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편),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혜안, 13-36.

김복수 · 손문금 · 정수남, 2004, 일상생활의 시 · 공간적 재구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영근, 2000, "일제하 식민지적 근대성의 한 특징-경성에서의 도시경험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7, 11-44.

김진균 · 정근식, 1998,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김태웅, 2000, "1910년대 '京城府' 유통체계의 변동과 한상의 쇠퇴," 이태진 외, 서울상업사, 태학사, 453-483.

노형석, 2005, 한국 근대사의 풍경, 생각의 나무.

도면희, 2001, "식민주의가 누락된 식민지 근대성," 역사문제연구, 7, 251-272.

木村光彦, 1990, "정기시", 안병직 외, 근대 조선의 경제구조, 비봉출판사, 280-307.

박선희, 2003, 전주의 금융 · 상업공간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박형용, 1996, "일제시대 서울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변화영, 2004 "소설 「탁류」에 나타난 군산의 식민지 근대성," 지방사와 지방문화, 7(1), 299-339.

손정목, 1984, "회사령연구," 한국사연구, 45, 85-130.

신명직, 2003, 모던뽀이, 경성을 거닐다: 만문문화로 보는 근대의 얼굴, 현실문화연구.

염복규, 2004, "식민지근대의 공간형성- 근대 서울의 도시계획과 도시공간의 형성, 변용, 확장," 문화과학, 39, 197-219.

유승렬, 1996, 일제초기 상업변동과 객주,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이규목, 2001, "서울 근대도시경관 읽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20세기 공간변천사, 99-158.

이기석, 2001, "20세기 서울의 도시성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20세기 공간변천사, 29-98.

이무용(윝김), 1999, 도시문화와 세계체제-문화, 공간, 역사로 읽는 세계도시 체제, 시각과 언어(King, A. D., 1990, *Urbanism, colonialism and the world-economy: cultural and spatial foundations of the world urban system*,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이승렬, 2000, “일제강점초기(1906-1919) 대한천일(조선 상업)은행과 경인지역 상공인,” 역사문제연구, 5, 51-130.

이재하·홍순완, 1992, 한국의 장시, 민음사.

이현창, 1990, 개항기 시장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이혜은, 1992, “일제침략기 서울의 민족별 거주지 분포,” 향토서울, 52, 105-155.

이혜은, 2001, “서울 20세기 교통의 발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20세기 공간변천사, 159-224.

임덕순, 1994, 600년 수도 서울, 지식산업사.

전경숙, 1983, “정기시 시스템 및 그 변용에 관한 연구,” 지리학보, 5, 52-62.

전우용, 1992, “일제하 민족자본가의 존재양태와 민족주의,” 역사비평, 340-361.

전우용, 2001, “종로와 본정-식민도시 경성의 두 얼굴-,” 역사와 현실, 4, 163-193.

정병욱, 2003, “일제말(1937-1945) 전시금융과 조선인자본가의 존재방식,” 한국사연구, 120, 217-242.

조재근, 2003, “일제강점 초기 상업기구의 식민지적 재편 과정-1910년대 상업회의소와 조선인 자본가,” 한국문화, 21, 257-288.

태혜숙 등, 2004,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하시야 히로시 지음, 김제정 옮김, 2005,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모티브.

허영란, 1994a, “일제시기 시장정책과 재래시장상업의 변화,” 한국사론, 31, 261-327.

허영란, 1994b, “일제시기 상업의 근대성과 식민지성,” 역사비평, 2, 208-221.

홍금수, 2002, “일제강점기 경성의 공업,” 문화역사지리, 14(1), 1-36.

홍성찬, 2002, “한말·일제하의 서울 종로상인 연구-포목상 김태희가의 ‘수남상회’ 운영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16, 217-267.

황명수, 1992, 한국의 시장상업사, 신세계백화점.

京城府, 1936, 産業要覽.

京城府, 1941, 産業要覽.

京城商工會議所, 1922, 朝鮮會社表.

京城商業會議所, 1923, 京城商工名錄.

京城商工會議所, 1928, 商工累年統計.

京城商工會議所, 1938, 朝鮮會社表.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1909-1941.

朝鮮總督府, 1925, 朝鮮人の商業.

Shin Gi-Wook and Robinson, M.(eds.), 1999, *Colonial Modernity in Korea*,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and London.

Siyoung, P., 1981, Rural Development in Korea: the Role of Periodic Markets, *Economic Geography*, 57, 113-126.

교신 : 박선희, 131-863, 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482번지, 서울신현고등학교(이메일 : audreypsh@hanmail.net, 전화 : 02-3422-2713)

Correspondence : Seon-Heui, Park, Shinhyeon High School, 482, Sangbong1-Dong, Jungrang-Gu, Seoul, 131-863, Korea(e-mail : audreypsh@hanmail.net, phone : 02-3422-2713)

최초투고일 06. 1. 28.  
최종접수일 06. 6. 21.

경성(京城) 상업공간의 식민지 근대성: 상업회사를 중심으로